

석유개발붐이 일고 있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 모세의 예언과 기적쫓아 -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굽어 보며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聖書는 기록하고 있다. 모세는 이들중 스불론과 잇사갈에 이르기를 그들은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할 것이며, 특히 아셀에 대해서는 많은 축복을 받아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구약 申命記 33장에 기록된 모세의 이러한 예언에 따라 역사상 최대규모의 하나로 꼽힐 수 있는 보물찾기사업이 이스라엘에서 전개되고 있다. 단지 성서에 근거하여 수백명의 美國 기독교실업인들이 세계 최대규모의 油田을 발견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수백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질탐사보다도 古代 이스라엘 부족의 분포도와 성서구절에 의지하고 있다. 시추중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美텍사스를 누비는 많은 탐사자들이 술을 마시며 悲運을 달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기도애 매달린다. 石油시추에 소요될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信仰의이다. 이들은 뉴욕·월街를 누비며 투자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신앙심이 강한 유명 성직자를 찾아다니며 성금을 마련했다.

成功을 위한 기도

수일안에 이스라엘에서 사상최대규모가 될 油田의 시추작업이 개시될 것이라는 기독교실업인의 말이 있는 직후 기독교계 방송국의 패트 로버트의장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사업이 성공하

기를 기도한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성서의 예언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T. V방송을 통하여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시추공은 성스러운 땅의 지하 6,531m 까지 파내려갔지만 아무런 油微도 발견하지 못한 채 중단된지 2년이 지났다. 최근에 들어 아셀 아틀리트井 시추에 1천3백만달러를 투자하였으나,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乾孔만을 남겨놓고 물러났다. 이렇게 신앙심에 이끌린 모험사업은 기적을 조건으로 하기 마련이며, 탐사와 투자자들 역시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아셀 아틀리트井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0만달러를 투자한 휴스턴의 지질학자 해리스 다르시씨는 『곧 여기에서 紅海의 기적에 버금가는 경사가 있을 것이다. 아직 시추하는 곳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배사구조로 보아 석유부존의 가능성도 없지만, 곧 기적이 일어나 井戸마다 기름이 넘쳐흐를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며 지금이 「주님의 시기」다』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스라엘政府도 해리스씨의 말대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정부는 복음시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 기독교실업인 또는 외국인에 의한 투자 1달러에 44센트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租鑽權料를 당초보다 12.5% 인하하여 되돌려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아 성공을 거둘 확률이 희박하지만, 시추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켄터키에서 기독교 라디오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밥·로저씨는 말한다. 그는 켄터키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수십만달러의 자금을 조성하여 아셀 아틀리트井에 투자한 바 있다.

장소에 대한 異見

그러나 탐사자들 사이에서 油田의 위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따라서 아셀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원인은 장소를 잘못 짚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셀 아틀리트시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휴스톤의 석유재벌 앤디 소렐씨는 시노르-리나스 또는 크로코다일江으로부터 북쪽으로 19.3km 떨어진 地中海 연안을 지목하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웨슬리 헨코크씨에 의하면 카펠山 기슭을 따라 아틀리트 북쪽 9.6km 떨어진 곳이 정확한 장소라 한다. 그는 그곳에서 25년전 2개孔을 시추한 적이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또 다른 석유재벌 클리프드 포드씨는 소렐씨 등이 판 시추공이 장소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石油가 묻힌 곳은 아셀의 땅이라기보다 스블론과 잇사갈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포드씨는 야곱의 아들인 이 두형제가 「바다의 풍성함을 빨아들일 것」이

라고 신명기에서 역시 모세가 예언한 대목을 주목하고, 「밭이 기름에 잠기는 것」과 「바다의 풍성함을 빨아들이는 것」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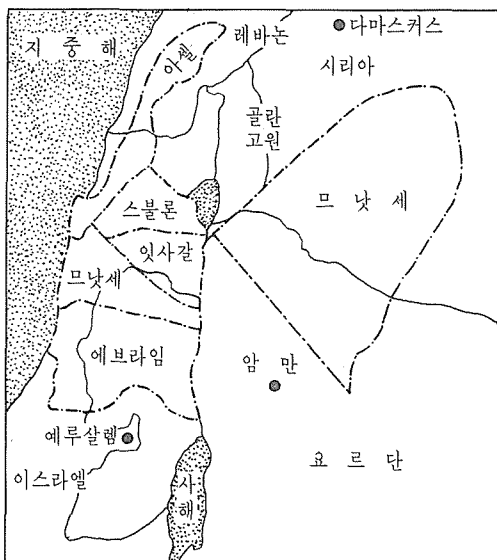
또 텍사스의 목사로서 石油탐사에 참여한 해롤드 스테픈씨는 성서연구를 토대로 이스라엘 최대유전지는 創世記의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잇담 계곡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외부인의 침략을 받고 도망칠 때 이 부근에서 「역청구덩이」에 빠졌는데, 이것은 美国의 東텍사스에서 거대한 油田이 발견된 경위와 꼭 같다고 한다. 단지 다른점이 있다면 王들 대신 텍사스에서는 畜牛가 빠졌었다고 덧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픈씨와 그의 투자자들은 古都 소돔과 고모라의 지하 1,524m 지점의 거대한 鹽山基底에서 고착상태에 있다. 그는 자금조달을 위해 백방으로 기독교인들의 후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텍사스 소재 자신 소유의 가스井을 매각하려 하고 있기도 하다.

信仰心の 남용인가

일부 학자들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물찾기 사업을 신앙심의 남용이라 격하하고 비단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닌 해묵은 문제라고 일소한다. 하버드神學校의 폴 한슨씨는 『성서는 의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성서의 구절을 빙자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스라엘에서와 같이 油井을 파는 등의 무모한 행동은 성서를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예언을 토대로 한 사업은 명목이야 어떠하든 物慾의 동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어떤 州는 성서에 의지한 시추사업을 위하여 起價를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조처를 취하고 있는 州들도 있다. 『증권감독관들은 성서의 예언들을 언급하거나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연스럽게 성서를 인용한 어떠한 사업도 하나의 기만일 수 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에서의 石油시추사업에 투자한 플로리다의 레오 길만계리사는 말한다. 또 다른 플로리다 출신 투자가 에드 맥그래스씨는 평소에도 교회사업확장을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 소득에서 십일



조를 떼고 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油田의 투자도 일맥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에 의하면 그것은 金錢 투자가 아니라 靈의인 투자라고 한다.

靈에 의한 투자는 텐버출신 석유재벌 길만 힐씨에게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주요 시추결정에 있어서 神에 의지한 바 컸다고 밝힌다. 카멜산의 엘리야시추에서 3백5십만달러를 소진한 후에도 그는 「만민이 神의 영광을 찬미할 것이다」라는 엘리야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축복받은 땅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시추孔을 파내려 가고 있다. 힐씨는 만일 石油를 발견한다면 이익금 거의 모두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石油발견과 연관지어 예수의 재림을 예사롭지 않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힐씨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거대한 油田이 발견되면 러시아와 터키가 빼앗으려 침입할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어 인류가 멸망하려 할 즈음에 예수가 재림하여 에루살렘에 도움을 정하고 새로운 국가를 창건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텍사스의 마이크 에반스 T. V 설교자는 아르메게든(세계종말의 大決戰)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텍사스의 石油재벌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新 이스라엘단체(Lovers of Israel)를 조직했다.

이스라엘에서 油田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동기와 목적이 오로지 신앙심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무리이다. 아셀 아틀리트井에 6,500달러를 투자한 플로리다의 짐레치아 목사는 약속된 땅에 石油를 찾는 일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큰돈을 벌려면 이스라엘로 가라고 장담한다.

그래도 대부분의 기독교인 투자자들은 예언에 이끌려 참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솟구치는 기름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세례하여 예수께로 인도하는 날이 올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스라엘政府도 지난 10여년동안 12개의 乾孔에 1억5천만달러를 쏟아넣은 후 이방의 투자자들의 예언에 가담하여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85세의 지질학자이자 정부자문위원인 레오 피카드씨는 이스라엘인들도 이곳에서 커다란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예수

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石油를 찾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인다. 이에 대해 아셀 아틀리트井에 투자한 바 있는 소렐씨는 실제로 휴스턴에서 神이 소금물을 기름으로 변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는 아셀에서 시추작업도중 좌절에 가까운 난관에 부딪친 적이 15번이나 되며, 모두가 두손을 모아 기도하면 기적을 열어주실 것이라 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아셀에서는 한때 포기하여 방치한 적도 있었던 시추孔 6,248m 지점에서 커다란 타르층을 발견하였다. 155평방킬로미터에 걸친 거대한 석회암구조에서 지질학자들은 石油가 분출될 것이라고 믿기도 하였다. 곧 장비를 보강하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한편, 몇몇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비행기를 전세내어 美國에서 날아 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환상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37m에 달하는 시추파이프만을 잃어버린 채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행하니 뚫린 乾孔만큼이나 우리들의 가슴은 허전하다』고 내스빌에서 온 래리 나피에르 목사는 말한다. 그는 이곳 아셀시추정에 28%의 자금을 대었는데, 그 돈은 테네시, 앨러버머, 켄터키, 조지아, 플로리다등의 여러 곳으로부터 신도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서 모은 성금이었다. 그들은 계속된 실패가 필시 역사상 대사건으로 기록될 예수의 재림을 방해하는 악령의 훼방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

희망을 잃지 않는 투자자들

그래도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피에르, 소렐 등의 주도자들은 아셀 아틀리트시추에 제도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47,780헥타미터에 걸쳐서 추가로 3개의 租鑽權을 따내었는데, 따라서 시추면적은 모세의 예언에 나오는 모든 부족을 커버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소액의 성금자들은 더 이상 돈을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도자들은 Ford Oil & Development 社를 끌어들여 탐사에 20만달러, 개발에 2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기독교인투자자들은 부흥집회나 기독교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포드오일의 持分을 매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메사추세츠나 캘리포니아의 증권감독관

들도 포드오일이 기독교인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이들 州에서는 성서의 구절을 인용한 어떠한 사업도 법률로써 금지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감독관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역할을 하여 자금조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짐 스펀만목사가 쓴 모세의 예언에 관한 책 「The Great Treasure Hunt」는 성서보다 많은 부수가 팔려나가기도 하였다.

소렐씨도 포드오일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同社로부터 당초의 20만달러를 받은 외에 한푼도 더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다른 곳에서 시추자금을 조성하느라 분주히 뛰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투자자원을 주로 기독교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유대인 지질학자 잭키 서어먼씨는 말한다. 몇 개월째 시추가 중단되어 있으며, 후원자들로부터 한푼의 성금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예언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 그에 의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몇몇 미친 개척자들에 의해 세계문명이 이룩되어 왔다는 사실이며 石油에 미친 기독교인들도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들이 心的으로 靈的으로 성서의 예언에 순종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

(아시아 월 스트리트저널 9/3)

□ 海外石油市場동향 □

싱가포르 亞·太지역의 석유거래센터로 부상

싱가포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石油거래 센터로서의 위치를 점차 굳혀감에 따라 세계 石油市場의 구조개편 움직임이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와 아울러 제품거래의 증대에 따라 세계 제3위의 정제기지로서의 역할도 최근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활발한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석유제품의 거래가 국제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항만 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업자들에 대해 금융·세제면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는 등 石油시장의 육성책을 적극화 하고 있다. 앞으로 中東제국의 석유정제기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한편, 日本이 석유제품 수입자유화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아시아 제국의 수요증대로 석유제품 거래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석유수급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싱가포르를 대서양지역의 로테르담에 필적할 만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석유거래센터」로 조성할 계획인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시장 조성책의 구체안을 상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조세 감면이 중심이 될 것이 확실하다. 石油소식통에 의하면 대폭적인 세금 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일부부역 상사들을 포함한 거래업자들은 싱가포르에 거점을 강화하거나, 다른 거래 센터에서 싱가포르로 거점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로는 항만을 이용할 경우, 原油나 석유제품

을 유조선에서 유조선으로 옮길 때 정부의 허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속절차면에서의 번잡성을 가능한한 줄이고, 동시에 파이프라인의 신설등 항만설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세계 3위의 석유정제 기지를 갖고 있어 석유정제업은 이 나라의 기간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세계적인 石油수요의 감퇴 등으로 가동률이 계속 떨어져 향후 5년 내에 정제시설의 50%를 삭감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중인 石油去來센터 조성방침은 저장설비나 지리적 우위성을 충분히 살린 자체 생존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석유거래 회의」에서 싱가포르의 한 고위관리자는 위와 같은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면서 싱가포르의 우위성에 대해서, 서쪽에 中東·印度·버마, 동쪽에 中共 등 산유국들이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통신설비와 금융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인 페레이턴 페샤라키 박사(하와이 東西센터 에너지 연구소장)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석유시장이 금세기 말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호황을 누릴 것이며, 특히 제품거래가 확대될 것이어서 中東지역 산유국들 뿐만 아니라, 中共도 유력한 시장 참여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日本경제신문 10/12)